

‘2014-15 한-러 상호 방문의 해’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

2014. 2. 27.

문화체육관광부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러시아 관광시장 현황 분석	2
III. 러시아 관광객 방한시장 분석	4
<참고> 주요 경쟁국 동향	6
IV. 러시아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및 10대 중점 추진 과제	7
<참고1> 러시아 개황	13
<참고2> 러시아 아웃바운드 상위국가 현황	14
<참고3> 향후 추진 일정	15

I. 추진 배경

- '13.11.13 개최된 한-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'새로운 한-러 관계,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'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
 - * 공동성명 주요내용: 한-러간 정치·안보 대화 강화, 민간 교류 활성화, 지역 협력 강화, 실질협력 확대(수산, 교통인프라, 북극항로개발, 관광 등), 국제무대협력 등
 - ** 한-러 관광분야 협력 협정('01.2월), 한-러 관광진흥협의회 합의서('08.3월)

- 양국은 동 회담 계기 '2014-15 상호방문의 해' 지정 양해각서* 및 사증면제 협정**을 체결, '13년 27만 명의 인적교류는 올해부터 급증 예상
 - * 관광 협력사업 개발, 마이스(MICE)·의료관광 개발, 관광교류 시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
 - ** 근로·거주·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60일간 무사증 입국·체류·출국 허용(총 체류기간은 180일 중 90일 초과 불가)

- 러시아는 세계 5위 아웃바운드 시장('11년)이자 해외여행 소비액이 높은('12년 세계 5위)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지속 성장 전망*
 - * '17년까지 러시아 아웃바운드 시장은 연평균 7.5% 성장 예상

- 따라서, '2014-15 한-러 상호 방문의 해' 및 무비자 시행('14.1.1. 발효) 계기, 러시아 관광시장 육성을 통한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 필요

- 특히, 개별관광객, 의료관광 목적의 러시아 방한객이 급증*하고 있어, 개별여행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필요
 - * '12년 방한 의료관광객 전체 4위 시장, '09~'12년 연평균 약 110% 증가

- 문체부는 민관 합동 인바운드 협의회('14.1.7), 제2차 관광산업 진흥 확대회의('14.2.3) 시 발표한 과제를 구체화시켜,
 - '2014~15 한-러 상호 방문의 해' 계기 러시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방안 마련

II. 러시아 관광시장 현황 분석

◇ 러시아 중산층 성장에 따라 러시아 해외여행자 수(세계 5위) 및 해외 소비액(세계 5위)은 급격히 성장

□ (국외여행자 수) 러시아 아웃바운드 규모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, '12년 국외여행자 수는 47백만 명 기록(총 인구 143백만 명)

* 국외여행자수(증가율) : ('10) 39,323천명(14.7%) → ('11) 43,726천명(11%) → ('12) 47,812천명(9.3%)
* '01~'08 연평균 11% 증가, '07년 대비 '12년 약 40% 증가

○ '12년 러시아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은 핀란드(5백만), 터키(3.3백만), 중국(2.3백만), 이집트(2.2백만)로, 한국('12년 16.7만 명)은 18위 차지

○ 해안관광 목적지나 비자 면제국을 선호, '13.9월 기준 그리스(66% 증), 태국(37% 증)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 기록

* 태국 입국 러시아인은 비자면제협정 조치로 '06년 전년대비 약 2배 증가

□ (해외여행 소비액) '12년 러시아인의 해외여행 소비액은 428억 달러로 중국, 독일, 미국,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기록(전년대비 30% 급증)

* 해외여행소비액(US\$억) : ('08) 238억 → ('09) 209억 → ('10) 265억 → ('11) 329억 → ('12) 428억

< 러시아 아웃바운드 규모 (단위: 천명) > < 러시아 관광객 지출액 (단위: US\$억) >



(자료원) : UNWTO Tourism Highlights, 2014 edition ('14.2월 기준)

- (러시아 관광객 유형) 아웃바운드의 40%가 모스크바 거주¹⁾, △신흥 중산층 △젊은 전문직 종사자 △상위 소득 그룹 △최상류층 및 자녀 (golden youth) 등 각 그룹별 여행 성향이 상이

구 분	그룹 특성	여행 특성
신흥 중산층 (Rapidly Emerging Middle Classe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06년 기준 8백만 명 ·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거주 · 월 소득: 800~1,000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 최소 1회 해외 여행 ·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 국가 선호 · 북서유럽 문화투어, 지중해· 북아프리카 휴일 해변관광, 쇼핑 선호
젊은 전문직 (Funky Young Professiona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~30대 다국적 기업, 러시아 대기업 근무 · 월 소득: 1,200~3,500불 · 명품 선호, 20대 후반 결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터넷 통해 목적지 및 가격 검색 · 유럽 선호 · 언어연수 및 유학 인기
상위 소득 그룹 (Upper Income Grou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06 기준 150만 명 · 대도시 거주(월 소득: 4,000불) · 금융·오일·가스 산업 종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커플 혹은 소그룹 투어 · 가족 지향적, 건강, 대체의학, 녹차에 매력 · 돈의 가치(value to the money)가 목적지 선택 기준
최상류층 및 자녀 (Ultra Rich and Golden Youth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2~45세, 약 10만 명 · 자산소득자 · 비행기, 요트 소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휴가지 소유 · 빌라 은둔형과 고급차· 고가의 보석 소유형으로 구분

(자료원) : The Russian Outbound Travel Market('09, UNWTO·ETC)의 '모스크바 주재 TM 컨설팅 조사('06) 재인용

- (정보 습득 경로) 러시아인은 해외여행 계획 시 인터넷과 여행사를 통해 정보 습득,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정보도 중요하게 인식

* 숙박시설 예약은 63% 이상 온라인 이용,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31% 수준²⁾

- (해외여행 성수기) 러시아인은 크리스마스 및 새해(2주간), 하계기간 (6.1~9.1 방학기간 중)에 해외여행이 빈번³⁾

* 5월 및 11월 단기연휴 기간에는 항공기로 4~5시간 소요되는 주변 관광지로의 문화 및 교육여행 선호

- (주요 레저활동) 해변에서의 휴식 외에 휴가지 주요활동은 쇼핑

- 부유층 및 고급 교육을 받은 러시아인들은 문화, 역사, 화려한 구경 거리(pageantry) 및 스포츠 활동에 관심

1) 러시아 아웃바운드 2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이며 최근 우랄지방 최대의 중공업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(Yekaterinburg), 제3의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(Novosibirsk) 해외여행 수요 점차 증가('10.6월, European Travel Commission)
 2) 자료원: Hotels.com 'Russian International Travel Monitor' ('13.11월)
 3) 자료원: Hotels.com 'Russian International Travel Monitor' ('13.11월)

Ⅲ. 러시아 관광객 방한시장 분석

◇ 방한 러시아인은 '10년 이후 지속 성장, '한-러 무비자 제도 시행' 계기 공세적 마케팅으로 태국, 홍콩, 일본 등 아시아 내 경쟁 우위 선점 필요

- (방한객 수) 러시아인 입국자수는 유럽 경제위기로 감소세였으나, '10년 이후 지속적 증가, '13년 전년대비 5% 성장한 17.5만 명 기록
 - * 단, 러시아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은 5% 미만(방한 외래객 비중도 2% 미만)

< 방한 러시아 관광객 추이 (단위: 천명) >



< 러시아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수 추이 >

연도	러시아인 출국자		방한 러시아인		러시아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	방한 외래객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
	인원 (천명)	증감률 (%)	인원 (천명)	증감률 (%)		
2006	29,197	2.4	145	0.5	0.5%	2.3%
2007	34,286	17.8	140	-2.9	0.5%	2.2%
2008	36,538	6.6	136	-2.9	0.4%	2.0%
2009	34,276	-6.6	137	0.5	0.4%	1.9%
2010	39,323	14.7	151	10.0	0.4%	1.7%
2011	43,726	11.2	155	2.7	0.35%	1.6%
2012	47,812	9.3	167	7.6	0.35%	1.5%
2013	-	-	175	4.8	-	1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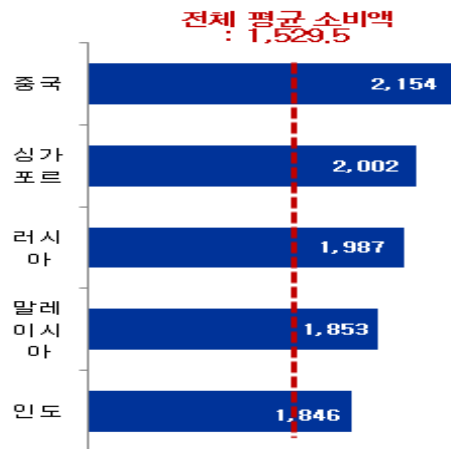
(자료원) :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(한국문화관광연구원) 및 2013 한국관광통계(한국관광공사)

- (러시아 관광객 지출액) '12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,987 달러로 중국(\$2,154), 싱가포르(\$2,002)에 이어 3위 기록

< 방한 러시아 관광객 지출액 (단위: US\$억) >



< 방한 외래객 1인당 지출액 (단위: US\$) >



(자료원) :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□ (체류 기간 및 횟수) 러시아인의 방한 평균 체류기간은 12.2일로
 외래 관광객 평균(6.7일) 크게 상회, 최근 3년간 4회 이상 방한한
 러시아인의 비중 또한 평균 상회(21.6% > 평균 17.7%)

□ (방한 목적) 러시아인의 방한기간 중 주요활동으로는 쇼핑(52.8%),
 업무수행(35.9%), 시티투어(28.5%), 휴양/휴식(14%), 의료관광(13.3%) 순

○ 특히,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('09~'12년 연평균 110.7%),
 '13년 기준 일본을 제치고 의료관광객 3위 국가가 될 전망

* '12년 방한 의료관광객은 국적별로 중국(24.1%), 미국(22.7%), 일본(14.7%), 러시아(12.2%) 순

< 의료관광객 최근 3년 간 상위 6개국 순위 >

(단위 : 명, %)

순위	국적	2012년		전년대비 증가율	2011년		2010년	
		유치실적	비중		유치실적	비중	유치실적	비중
1	중국	32,503	24.1	69.1	19,222	18.9	12,789	19.4
2	미국	30,582	22.7	11.1	27,506	27.0	21,338	32.4
3	일본	19,744	14.7	△12.2	22,491	22.1	11,035	16.8
4	러시아	16,438	12.2	70.3	9,651	9.5	5,098	7.7
5	몽골	8,407	6.2	157.4	3,266	3.2	1,860	2.8
6	베트남	2,231	1.7	67.0	1,336	1.3	921	1.4

(자료원) : '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' ('13.8월,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)

□ (기타 방한 선택시 영향 요소) 한국여행 정보 입수경로는 친지/친구/
 동료(66.6%), 인터넷(54.6%), 관광안내서적(13.4%), 여행사(12.6%) 순

○ 여행 계획 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(89.2%)

* 타 국가 비교 시 일본(38.8%), 중국(37.3%), 태국(10.5%) 검토비율 높은 편

□ (만족 및 불편사항) '12년 방한 러시아인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외래
 관광객 평균 만족도(4.14점/5점 기준)보다 높은 편(4.28점)

* 특히, 쇼핑 만족도는 방한 관광객 중 러시아인들이 가장 높았으며(4.36점),
 친절도, 안전성도 한국 여행시 좋았던 점으로 분석

** 반면, 언어소통(67.3%), 입에 맞지 않는 음식(15.9%)을 불편사항으로 언급

(참고) 주요 경쟁국 동향

- (핀란드)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전통적인 러시아 아웃바운드 1위 시장으로 '12년 최초로 5백만 명 유치(약 80%,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문)
 - 비자완화 위원회 구성, 상트페테르부르크-헬싱키 간 철도 연결 갱신, SNS 캠페인 강화(기 방문객의 친지 추천 장려, '13년~) 및 모스크바 지역 라디오 광고 실시('13~'14 겨울시즌) 중

- (중국) '05~'08 기간 중 러시아 아웃바운드 2위 시장에서 '13.9월 기준 5위로 하락하였으나, 인접국으로 여전히 2백만 명 이상 방문
 - * '13.9월, 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한국, 일본, 미국에 이어 4위
 - ** '10년 중국 해남도와 러시아 하바롭스크, 이루크추크, 크라스노야스크, 노보시비르스크, 크메로보와의 직항 개설 후 방중 러시아인 증가
 - '12년 중-러 방문의 해 프로그램 실시 등 양국 간 교류 증대 추진

- (터키) 러시아 아웃바운드 2위 시장으로 해변관광, 저렴한 숙박비용, 접근성, 무비자 등이 러시아인 유치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
 - * 러시아 관광객 수(증가율, %) : ('12.9월) 2,850,333 → ('13.9월) 3,654,272 (22%)
 - ** '00년까지 이스탄불·흑해지역 방문 비중 높았으나, 최근 지중해 인근 베렉(Belek)과 케메르(Kemer) 지역 인기 상승(최장 3개월 체류하는 사례 존재)

- (그리스) '04년 그리스 올림픽 이후 인지도 상승 및 공격적인 마케팅** 추진으로 '13.9월 전년대비 66% 성장(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를 제치고 아웃바운드 6위)
 - * 러시아인 휴가지로의 정립까지 많은 시간 소요, '05년 20만 명(러시아 아웃바운드 15위)→'13.9월 130만 명 유치(6위) ('00~'04년 연평균 17%, '04~'07년 30% 성장)
 - ** '13.2월 그리스-러시아 관광포럼, '13.5월 러시아 언론인초청 장관 브리핑 등

- (스페인) 직항로 증설, 비자 완화 등으로 러시아 관광객은 '13년 상반기 전년대비 34% 증가

- (태국) '05.12월 태국-러시아 무비자 협정 체결(최대 30일 체류) 이후, 러시아 관광객 수는 '06년 18만 명에서 '12년 131만 명으로 폭증*
 - * 태국 측 인바운드 관광통계 기준이며, 러시아 아웃바운드 통계 수치('12년 111만 명)를 상회
 - 태국은 무비자, 합리적 가격의 해변관광이라는 러시아인 여행 선호 조건과 더불어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급성장 중

- (홍콩) '09년 이후 러시아인과 홍콩 영주권자 대상 비자면제 조치 시행(최대 14일까지 무비자 체류), '12년에는 러시아 관광객 41% 증가
 - * 러시아인 인기 여행시즌인 겨울 프로모션을 모스크바 지역 외 상트페테르부르크,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확대

IV. 러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및 10대 중점 추진 과제

비전

고부가가치 신형시장 육성을 통한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



목표

	연도		⇒	
	양 [量]	러시아 관광객 유치 규모 [방한 관광객 비중]	2013년 17만 명 (1.4%)	2017년 35만 명 (2.2%)
		의료관광객 유치 규모	1.8만 명	10만 명
질[質]	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			

추진 전략 및 10대 과제

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

- ①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
- ② 의료관광 홍보 채널 확대
- ③ 「K-의료한류센터」 기능 강화

대규모 마이스(MICE) 및 개별관광객(FIT) 유치 촉진

- ① 대규모 마이스(MICE) 유치 촉진
- ② 타겟별 개별관광객(FIT) 상품 개발

지방관광 육성 및 안내서비스 개선

- ① 전세기 취항 연계 지방관광 상품 개발
- ② 자매도시 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
- ③ 안내서비스 개선

한-러 상호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

- ①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
- ②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

1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

◇ 급성장('09~12년 3년간 연평균 110.7% 증가)하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맞춤형 홍보 마케팅 강화

- (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)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진료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리미엄 상품 개발
 - 러시아 의료관광객 선호 진료과목* 대표 병원과 문화와 관광자원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(부산, 강원)와 공동 상품개발
 - * 내과(28.1%) → 검진(16.7%) → 산부인과(6.7%) → 정형외과(5.1%) 순('13년)
 -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류하는 성향*을 고려, 진료 후 사후관리에서 휴양에 이르는 '2014 의료관광 신상품**' 발굴
 - * '치료+사후관리+휴양' : 불임시술(30일), 척추·관절 수술(20일), 건강검진(7일)
 - ** '헬스체크업', '한방명의와 함께하는 한국여행', '고부가 명의상품' 등
- (의료관광 홍보 채널 확대) 러시아 현지 최초의 한국의료관광박람회 (KIMTC) 개최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
 - 유치기관 및 지자체 등 공동 참여하는 한국의료관광박람회 개최 통한 현지 홍보 및 업계와의 프로모션 강화('14년 하반기, 러시아)
 - 러시아 캄차카 주와 공동으로 의료관광박람회 개최('14년 중, 캄차카 주)
 - * 한-러 의료기관 교류 및 나눔 의료 추진, 의료관광산업 세미나 및 설명회
 - SNS 의료관광홍보단* 발족('14. 4월) 및 러시아 SNS(브간딱제) 활용 마케팅 강화
 - * 국내거주 러시아 유학생 활용 구전마케팅 확대(전국 단위 러시아어 권 20명)
- (「K-의료한류센터」 기능 강화) 기존 U-헬스센터(블라디보스톡)를 극동 지역 한국의료관광 종합홍보센터(K-의료한류센터)로 기능 강화
 - 러시아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국내 의료기관 공동 마케팅 추진
 -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현지 진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
 - * 향후 중서부 내륙권(이르쿠츠크 등) 또는 CIS(카자흐스탄)권역 내 확대 개소 추진

② 대규모 마이스(MICE) 및 개별관광객(FIT) 유치 촉진

◇ 잠재 고부가가치 시장인 러시아 마이스(MICE) 시장 개척 및 개별 여행객 증대 추세에 대응한 개별관광객(FIT) 특화 상품 개발

□ (대규모 마이스 유치 촉진) 러시아 마이스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유력 기업 대상 유치 지원 확대

* 마이스(MICE, Meetings·Incentives·Conventions·Events and Exhibition): 회의, 포상관광, 국제회의,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

○ 러시아 내 주요 마이스 전문 여행사, 기업 인센티브(포상관광)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(모스크바 및 주요 도시 / '14.3월, 6월)

* '14.3월 러시아국제관광박람회(MITT) 및 '14.6월 한국주간 연계

○ 기업·관공서 등 주최 국제회의(Out-of-Country Meeting) 유치 마케팅 강화

* 제24회 RBC 국제포럼('12년/서울, 에너지부 차관 등 러 유력인사 200명) 성공사례 지속

○ 국내 마이스 시설 현장답사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 주재 한국 진출 기업의 현지직원(우수 딜러) 기업회의·인센티브 단체 재방한 유치

* 기 방한한 현대중공업·LG전자 등 러시아 진출 기업의 우수 현지직원 인센티브 단체의 방한 유치 확대('13년 90명→'15년 500명→'17년 1,000명 목표)

□ (타겟별 개별관광객 상품 개발) 개별 관광객 시장을 세분화(연령, 계층, 테마 등)하여 유형별 상품 구성 및 홍보 강화

○ K-Shuttle 상품 등 다양한 테마 활용 상품 개발 및 참신한 한국 고유 FIT(Free Individual Traveler) 관광 테마* 지속 발굴

* 최신 K-Pop, 드라마, 예능 프로그램 등 토대로 한 한류 소재 상품 개발

**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해변휴양, 스키체험을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'비치(Beach) & 스노우(Snow) 코리아 페스티벌' 상품 출시

○ 핵심적인 한국 여행정보가 수록된 개별 관광객(FIT) 가이드북 제작 및 유료 가이드북 '폴리글롯(Polyglott)' 한국편 제작 추진('14.4~9월)

* 러시아 전역 주요 서점 판매망 확보(<http://russianguid.ru/polyglott.html>)

러시아 관광객 유형에 따른 FIT 관광상품 구성

구 분	그룹 특성	여행 특성	타겟 관광상품
신흥 중산층 (Rapidly Emerging Middle Classe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06년 기준 8백만 명 ·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거주 · 월 소득: 800~1,000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 최소 1회 해외여행 ·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 국가 선호 · 북서유럽 문화투어, 지중해· 북아프리카 휴일해변관광, 쇼핑 선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네스코 문화유산 순례 (고궁, 조선왕릉, 석굴암 불국사, 안동하회마을 등) - 해변휴양· 문화체험 (서울+부산 4박5일 / 서울+제주 5박6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서울 시티투어 2박 ☞ 부산 2박 · 해변 : 해운대, 광안리 · 쇼핑 : 센텀시티, 면세점 · 문화: 용궁사, 자갈치시장, 감천마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주 3박 · 자연 : 성산일출봉 등 · 해변 : 협재해변 등 · 체험 : 제주 올레길 · 문화 : 성읍민속마을 등
젊은 전문직 (Funky Young Professiona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~30대 · 다국적 기업, 러시아 대기업 근무 · 월 소득: 1,200~3,500불 · 명품 선호, 20대 후반 결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터넷 통해 목적지 및 가격 검색 · 유럽 선호 · 언어연수 및 유학 인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 나이트라이프체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홍대, 강남 클럽체험 ☞ 동대문 야간쇼핑 등 - 해변휴양 + 레저 스포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부산 : 요트투어, 쇼핑 ☞ 제주 : 패러글라이딩, 스쿠버다이빙, 요트, 올레길 - 스키 & 럭셔리 리조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강원도 용평, 평창, 정선
상위 소득 그룹 (Upper Income Grou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06 기준 150만명 · 대도시 거주 · 월 소득 : 4,000불 · 금융·오일·가스산업 종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커플 혹은 소그룹투어 · 가족지향적, 건강, 대체의학, 녹차에 매력 · 돈의 가치(value to the money)가 목적지 선택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도 휴양 + 문화체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남도 음식· 문화체험 · 전주 한옥마을 숙박, 전통 한정식 체험 · 순천만(정원), 낙안읍성 · 보성 녹차밭 다도체험 · 담양 죽녹원 힐링체험 - 의료관광 상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서울 도심 및 근교 투어 · 강남, 경기 DMZ ☞ 의료체험 · 피부미용, 한방(침/뜸), 정밀 건강검진 등 - 에듀(Edu) + 체험 상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어마을, 스키강습 등
최상류층 및 자녀 (Ultra Rich and Golden Youth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2~45세 · 약10만 명 · 자산소득자 · 비행기, 요트 소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휴가지 소유 · 빌라 은둔형과 고급차· 고가의 보석 소유형으로 구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지노 + 쇼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남 카지노, 면세점 - 휴양 + 레저 스포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주 : 요트, 올레길 스쿠버다이빙, 골프 등 ☞ 프라이빗 글램핑, 낚시 등

③ 지방관광 육성 및 안내서비스 개선

◇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재 경향을 고려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안내서비스 개선 추진

- (전세기 취항 연계 지방관광 상품 개발) 전세기 취항으로 극동 러시아 주요 도시와 강원, 제주 지역 간 관광교류 확대
 - 러시아 극동지역 전세기 취항 활용 지방관광(강원, 제주) 상품 개발
 - * 블라디보스토크-양양 (러시아 Mega Tour, '14년 첫 취항 예정)
 - ** 하바롭스크-제주 (러시아 Rost Tour, 전세기 취항 추진 협의 중)

- (자매도시 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) 양국 지역 간 문화·체육·관광교류 및 수행여행 촉진
 -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교류, 지역 축제 대표단 초청
 - * 주요 자매도시(결연연도) : 모스크바-서울('91), 이르쿠츠크-경북('96), 하바롭스크-경남('96), 연해주-강원('98), 노보시비르스크-전남('05), 상트페테르부르크/블라디보스토크-부산('08)
 - 잠재 성장시장인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유치 추진('14.3월, 255명 모객)

- (안내서비스 개선) 러시아 관광객 증가에 부응하는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안내 체계 개선
 - 결혼이주 경력단절 여성, 외국어대 학생 인력 활용, 특별시험(연1회) 추가 실시('15년) 및 인력풀제 운영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확충
 - *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지자체·외대 등과 협력, 설명회 및 자격취득교육 실시
 - 의료관광 코디네이터(노어) 인력 풀 확보 및 의료기관 내 러시아어 안내 표지판 설치*, 유관기관** 연계 불편 신고접수 시스템 마련 추진
 - * '14년까지 20개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기관 내 시범 설치 후 확대
 - ** 관광공사, 관광경찰,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
 - 온라인 통합플랫폼 러시아어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
 - * 관광편의 정보(숙박, 렌터카, 거점도시·지역관광지 연계 광역 교통 안내) 및 의료관광 서비스 안내

4 한-러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

◇ '2014~15 상호방문의 해' 계기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러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

□ (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) 정부, 민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하여 관광품질 향상 및 관광객 교류 증대 촉진

○ 주요 행사* 계기 '한-러 관광장관회담'을 정례화(연 1~2회)하고, 기존 실무 중심의 '한-러 관광진흥협의회'(08년 발족, 5회 개최) 재개 추진

* UNWTO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장관 원탁회의('14.6.17-18, 소치), 제8차 APEC 관광장관회의('14.8월말-9월초, 마카오) 등

○ 양국 '관광 주간*' 기간 중, '한-러 관광교류 포럼**' 개최 추진

- 특히, '문화관광대전'을 개최, 양국의 대표 문화·관광 자원 홍보

* '한국 주간(Korea Week)': '14.6월 모스크바, '러시아 주간(Russia Week)': 14.하반기 등 추진 협의

** 업계 환경 개선 및 관광품질 제고방안 등 논의

○ 한-러 양국 언론인 및 여행업자 팸투어 상호 실시 등 업계 종사자간 인적교류를 통해 관광홍보 및 협력 증대

□ (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) 러시아 관광객 유치 위한 체계적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한국관광 온·오프라인 통합 홍보 강화

○ '러시아 관광시장 조사(상반기) 및 주기적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(분기별)하고, '러시아 인바운드 협의회(분기별)를 통해 지자체-업계 건의사항 정기 수렴

○ '상호방문의 해' 특별 홍보 페이지 제작(3월) 및 방한 캠페인 상품 연계 온라인 홍보(러시아 최대 포털 사이트 및 SNS 활용)

○ 주요 관광객 송출 도시* 대상, 인바운드 업체·호텔·관광 유관기관 등 러시아 관광객 유치단 파견(연3회) 및 라디오·옥외 광고 집중 실시**

*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, 노보시비르스크, 이르쿠츠크, 블라디보스토크, 하바롭스크 등

** 시베리아 횡단철도 래핑광고 추진 (한국관광 및 한러상호방문의해 홍보/2개월)

** Intourmarket(3.15-18, 모스크바), MITT(3.19~22, 모스크바), PITE(5.16~18, 블라디보스토크) 등 주요 관광박람회 계기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

참 고 1

러시아 개황

□ 경제 현황

- 러시아는 '00년 이후 연평균 약 7%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 국제수요 감소 및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'09년 Δ 7.9% 경제 성장률 기록

< 주요 경제 수치 >

구 분	'08	'09	'10	'11	'12	'13
GDP (10억US\$)	1,661	1,222	1,487	1,850	2,022	
1인당GDP(US\$)	11,704	8,617	10,408	12,993	14,246	
경제성장률 (%)	5.2	-7.8	4.3	4.3	3.7	1.3
소비자물가상승률 (%)	14.1	11.7	6.9	8.4	4.8	

(자료원) :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- '13년 러시아 중상층 규모는 1억 4백만 명*으로 '20년까지 러시아 전체 인구의 86% 점유 예상, 소비규모는 1조 3천억 불 전망

* (자료원) : Hotels.com 'Russian International Travel Monitor' ('13.11월)



□ 인구 및 주요 도시

- '12년 러시아 전체 인구는 약 143백만 명
- 1,067개의 주요 도시 중 인구 백만 명 이상 도시는 11개
 - 최대 도시는 모스크바(1,050만명)로, 상트페테르부르크, 노보시비르스크(Novosibirsk), 니지니 노브고로드(Nizhni Novgorod), 예카테린부르크(Yekaterinburg) 등이 대규모 도시

참 고 2

러시아 아웃바운드 상위국가 현황

순 위	국가	연도별 러시아 관광객 출국자 수(단위: 명, %)				비고
		'11	'12	'13.9월	증가율 ('12.9월 대비)	
1	핀란드	4,416,283	5,118,780	4,213,681	9%	인접국
2	터키	3,260,138	3,334,727	3,654,272	22%	무비자('11.4월)
3	에스토니아	1,678,374	1,825,923	1,712,778	23%	인접국
4	이집트	1,659,611	2,246,440	1,652,204	14%	무비자 후 급성장
5	중국	2,432,615	2,312,199	1,509,254	△11%	인접국
6	그리스	710,304	834,355	1,292,791	66%	지속 성장
7	독일	1,325,452	1,385,363	1,196,171	16%	
8	스페인	758,866	990,637	1,107,423	28%	
9	태국	917,848	1,112,253	933,579	37%	무비자 후 급성장
10	이탈리아	734,210	794,323	855,119	35%	
11	리투아니아	755,926	910,511	771,967	11%	
12	불가리아	405,689	469,122	562,196	26%	
13	UAE	457,736	649,428	526,041	33%	
14	체코	462,092	505,163	466,097	24%	지속 성장
15	프랑스	410,574	457,083	451,495	32%	엄격한 비자
16	이스라엘	335,933	339,029	278,623	15%	
17	미국	242,098	276,354	245,502	21%	
18	한국*	161,893	187,536	152,944	16%	
19	노르웨이	126,435	154,272	129,437	14%	
20	일본	67,563	79,099	66,183	16%	
총출국자 수		43,725,777	47,812,920	42,583,312	14%	

(자료원)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Russia (Goskomstat) ('13년)

*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의 경우 한국관광통계와 상이(집계방법의 차이)

참 고 3

향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			
①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	문체부	'14년~	
② 의료관광 홍보 채널 확대	문체부	'14년~	
③ 「K-의료한류센터」 기능 강화	문체부	'14년~	
2. 대규모 마이스(MICE) 및 개별관광객(FIT) 유치 촉진			
① 대규모 마이스(MICE) 유치 촉진	문체부	'14년~	
② 타겟별 개별관광객(FIT) 상품 개발	문체부	'14년~	
3. 지방관광 육성 및 안내 서비스 개선			
① 전세기 취항 연계 지방관광 상품 개발	문체부	'14년~	
③ 자매도시 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	문체부	'14년~	
④ 안내서비스 개선	문체부	'14년~	
4. 한-러 상호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			
①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	문체부	'14년~	
②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	문체부	'14년~	